

턱목뿔근신경의 재조명

홍용신¹, 김소연¹, 박영석^{1,2}


¹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치학연구소

²서울대학교 미래치의학센터

ORCID ID

Yong Shin Hong,  <http://orcid.org/0000-0001-7406-4662>

Soyeon Kim,  <http://orcid.org/0000-0001-6377-9902>

Young-Seok Park,  <http://orcid.org/0000-0002-0148-7848>

ABSTRACT

Mylohyoid nerve revisited

Yong Shin Hong¹, Soyeon Kim¹, Young-Seok Park^{1,2}

¹Department of Oral Anatom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Head, Center for Futur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ylohyoid nerve is also called nerve to mylohyoid (muscle). This nerve is a branch from the inferior alveolar nerve, which is very familiar to our dentists due to the frequently used block anesthesia for mandibular tooth treatment. The motor fiber is known to be the main component of the nerve that is distributed in the mylohyoid muscle and 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In this review article, the following contents will be discussed: the naming story based on the etymology, the general route and main function of the nerve, the research related to the failure of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anesthesia, and finally other miscellaneous anatomical research results and their clinical significance.

Key words : Mylohyoid nerve, Mylohyoid muscle, Anesthesia, Inferior alveolar nerve

Corresponding Author

Young-Seok Park, DDS, MSD, PhD, Professor

Department of Oral Anatomy and Dental Research Institute,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101 Daehak-ro, Jongno-gu, Seoul, Korea

Tel : +82 2-740-8604 / Fax : +82 2-2072-3859/ E-mail : ayoayo7@snu.ac.kr

1. 들어가기

턱목뿔근신경(mylohyoid nerve)은 Nerve to mylohyoid m.이라고도 불리며, 대한해부학회 의학용어사전¹⁾에 의하면 한글로는 턱목뿔근신경으로 표제 되어 있고, 옛 용어로서는 한자 용어에 기원한 악설골근신경(顎舌骨筋神經)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신경은 우리 치과의사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래이틀신경(하치조신경, Inferior alveolar nerve)으로부터 분지 되어 나온 한 가지로서 운동섬유가 주된 신경으로 두힘살근(악이복근, Digastric m.)의 앞힘살(전복, anterior belly)과 턱목뿔근(악설골근, mylohyoid m.)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턱목뿔근신경의 명칭, 신경의 일반적인 주행 경로와 주된 기능, 그리고 아래이틀신경 전달마취와 관련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기타 해부학적인 연구 결과들 및 이들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한다.

2. 용어와 관련하여

Terminologia Anatomica²⁾에 등재되어 있는 라틴어 용어 n. mylohyodeus나 nerve to mylohyoid에 포함된 'mylo'라는 어근은 고대 그리스어가 출처로 어금니(molar)를 뜻하고, hyoid는 그리스 문자 입실론(upsilon Υ, ν)과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shaped like the letter upsilon [ν]), 좀 후대로 내려와서는 로마자 U를 닮았다는 의미도 가진다³⁾. 따라서 라틴어에서 출발된 이 신경의 이름이 악설골근신경으로 불렸다가 뒤에 턱목뿔근신경으로 한글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한자 악설골근신경이란 단어는 원래 라틴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에서는 약간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설골(舌骨)이라는 명칭은 이 뼈가 혀의 움직임과 관계있는 다수 근육의 부착 부위이므로 기능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었지만, 라틴어에서는 단순히 그 뼈의 생김새(U자형)를 기술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글 명칭 목뿔뼈는 이 뼈에 달려 있는 큰 뿔(greater horn)과 작은 뿔(lesser horn)에 착안하여 척추뼈 중 하나인 목뼈(경추, cervical vertebra)와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글자 그대로를 해석한다고 가정하면, 설골은 마치 혀 속에 뼈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목뿔뼈는 우리 몸에서 목뿔이란 구조가 어디쯤 달려 있을까 생각하게 만든다. 아마도 hyoid bone을 설골이라 불렀던 것은 이 신경 이름을 일본어판 위키피디아⁴⁾에도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본 용어를 원용한 것일 듯싶다. 한글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턱목뿔근이 되어 길이 때문인지 '뼈'가 빠졌다.

Mylohyoid nerve, 혹은 nerve to mylohyoid는 당연히 턱목뿔근에 분포하는 신경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턱목뿔근의 명명은 라틴어 어원을 생각해 볼 때, 아래턱에서 어금니가 위치하는 곳의 안쪽 부분에서부터 턱목뿔뼈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텐데, 이 근육의 이는 곳(origin)은 턱목뿔근선(mylohyoid line)이라고 불리며, 이 선은 어금니 안쪽 부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전방부에서부터 시작되니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 근육은 다른 목뿔위근육(suprahyoid muscles)들과 마찬가지로 목뿔뼈와 두개골을 연결하고, 무엇보다 하악 총의치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근육이다.

3. 신경의 주행과 일반적인 기능

턱목뿔근신경은 삼차신경(trigeminal n.)의 최대 분지인 아래턱신경(mandibular n.)의 종말가지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으로는 posterior trunk에 속하는 세 개의 가

지 중 아래이틀신경(inferior alveolar n.)의 뒷부분에서, 즉 이 신경이 아래턱 속으로 진입하는 턱뼈구멍(하악공, mandibular foramen)의 근처에서 흔히 분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지한 턱목뼈근신경은 턱목뼈근신경고랑(악설골근신경구, mylohyoid groove)을 따라 앞아래쪽으로 진행하여 턱목뼈근 하면에 도달했을 때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목뼈위근육 중 턱목뼈근과 두힘살근의 앞힘살에 들어가 이들의 운동을 지배한다⁵⁾.

턱뼈관(하악관 mandibular canal) 속으로 들어간 아래이틀신경 자체는 대체적으로 감각신경으로 분류되지만, 그 분지인 턱목뼈근신경의 주된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신경 성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감각섬유도 포함되어 있어 저자에 따라 턱밑부위(submandibular area)의 피부를 지배한다고 소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턱끝밑부분(submental area)의 중심을 차지하는 피부에 감각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아래이틀신경 마취와 관련하여

임상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아래이틀신경 전달마취법은 생각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률은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비가역적 치수염의 치료와 관련해서 Claffey 등⁶⁾은 고작 23~24%의 성공을 보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학생과 인턴 등에게 실시한 한 조사 연구⁷⁾에 따르면 85.7% 이상이 이 마취법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원인을 해부학적인 변이로 생각하고 있고, 치주인대마취법(intraligamental anaesthesia)을 그 대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을 못했던 경우도 42.8%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적지 않은 문헌들^{8,9,10)}에서 아래이틀신경 전달 마취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한 무작위 대조시험 결

과에 의하면, 실패했을 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아터케인을 이용한 협측 추가 마취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가 있다. 또 아래턱이 후퇴되어 있는 (retrognathic) 환자에게서 실패율이 높다는 재미있는 보고도 있다¹¹⁾.

아래이틀신경 전달마취를 하고도 하악 치아에서 충분한 마취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악 치아의 다른 감각 신경 경로가 있다는 의미이며, 흔히 의심되는 것로는 볼신경(buccal nerve, long buccal nerve), 혀신경(lingual nerve), 깊은관자신경(deep temporal nerve), 목신경얼기(cervical plexus)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턱목뼈근신경에 의한 부가 경로가 포함된다. 실제로 아래이틀신경은 상당히 다양한 주행 양상을 보이며¹²⁾, 턱뼈구멍으로 진입하기 직전 턱목뼈근신경의 분지를 내는데, 때에 따라 다시 다수의 작은 가지로 분지하여, 아래턱 안쪽면의 다수의 작은 구멍 등을 통해 진입하여 골내주행을 통해 어금니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15)}. Haveman과 Tebo의 보고에 의하면 아래턱 안쪽에 존재하는 평균적인 작은 구멍의 수는 무려 36개나 된다고 하며¹⁶⁾, 특히 이런 작은 구멍들 중 상당수가 턱목뼈근신경고랑(groove for mylohyoid nerve)과 깊이 연관성을 가져 고랑 안쪽이나 고랑에서 매우 가깝게 위치한다고 하니¹⁷⁾, 이 경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Bennett과 Townsend¹⁸⁾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턱목뼈근 신경이 아래이틀신경에서부터 분지하는 곳과 턱뼈구멍(mandibular foramen) 사이의 거리가 3.9mm에서부터 27.0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그 분지 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아래이틀신경 마취 때, 턱목뼈근신경이 완벽히 마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비슷한 몇몇 보고들이 더 있다^{19,20)}. 이에 더해 아래이틀신경 본줄기와 턱목뼈근신경 사이에 턱뼈혀돌기(lingula of mandible)에 부착하는 나비아래턱인대(sphenomandibular ligament)나 그 밖의 근막(fascia)들이 존재할 수 있어 이들의 위치적 관계가 마취액

의 적절한 분산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21,22}.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 때, 아래턱의 안쪽으로 턱목뿔근을 지나도록 주사침을 자입하는 턱목뿔근신경의 마취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²³. 신경 서로 간의 교통도 부가적인 감각 경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데, 턱목뿔근신경의 경우 전방부에서 앞니가지(incisive branch)와 서로 교통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혀신경과 아래이틀 신경사이에는 기본적인 상호 교통이 존재하는데, 아래이틀신경 전달 마취 중 충분한 마취가 되지 못했을 때 한 가능성이 된다^{24,25}. 깊은관자신경은 운동신경섬유가 주된 분지이지만 종말가지들은 측두근을 지나 역시 어금니 뒷 부분(retromolar area)의 작은 구멍들로 진입하여 어금니의 감각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²⁶. 후구치구멍(retromolar foramen)에 대한 보고 역시 다수이지만^{27,28,29}, 이 구멍의 임상적인 의미는 그 이상으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생략한다. 한편, 제2, 3 목신경에서부터 유래하는 목신경열기에서 나오는 오름 가지의 하나인 큰귓바퀴신경(대이개신경, greater auricular nerve)은 원래 귓바퀴나 귀밑샘, 그리고 꼭지돌기 근처의 피부에 분포하는 피부신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하악 어금니 부위의 감각에 일부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³⁰. 위에서 언급한 신경들 중 볼신경이나 깊은 관자 신경의 아래턱신경의 앞줄기(anterior trunk)에 해당하므로, 다시 말해 아래이틀신경이 속하는 뒷줄기(posterior trunk)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마취가 잘 안될 때, 아래이틀신경 전달마취법을 반복하는 것은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는 신경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큰귓바퀴신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 기타 턱목뿔근신경의 해부학적 연구와 임상적 관련성

턱목뿔근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³¹. 일반적으로 턱목뿔근신경이 턱목뿔근의 운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이하게 혀밑신경과의 이중 신경 지배가 보고된 적도 있다³². 턱목뿔근 신경은 아주 드물게 아래이틀신경이 아닌 상위의 하악신경에서 부터 직접 분지되어 나오기도 하고^{33,34}, 특이하게는 혀신경에서 부터 분지되기도 하며³⁵, 혀신경과 교통을 이루는 것이 자주 보고되었다^{36,37,38}.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신경에는 감각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843년에 밝혀졌으니, 상당히 오래전이라 할 수 있다³⁹. Madeira 등에 의하면 50% 이상의 케이스에서 턱목뿔근신경은 아래턱의 턱뼈결합(mandibular symphysis) 근처 설측 표면의 부가적인 작은 구멍을 통해 아래턱 속으로 들어가서 아래 앞니 부위나 근처의 잇몸에 분포하거나 같은 편이나 반대편의 앞니 신경과 교통함이 관찰되었다⁴⁰. 또한 턱목뿔근신경이 아래 어금니 뿌리 끝 근처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치아의 발치 때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혀신경과의 교통으로 인해 혀감각 마비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된 적이 있다⁴¹.

턱목뿔근신경은 피부신경으로서는 턱끝용기(mental protuberance)와 턱끝밑부위(submental region) 양측에 장사방형 형태의 피부에 분포하여, 턱끝성형술(genioplasty) 중 근처의 연조직 손상 때 관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42,43}. 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와 같은 악교정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 신경의 손상과 아래이틀신경에 대해 함께 진행된 연구도 있었다⁴⁴.

한편, 임플란트의 등장으로 하악 의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보철전 수술로서, 턱목뿔근선 혹은 용기(mylohyoid ridge) 자체의 삭제술은 요즘은 거의 시행되지 않지만 당연히 이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⁴⁵. 그뿐만 아니라 턱목뿔근 신경은 턱밑샘(submandibular gland)에 가끔 분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⁴⁶, 이로 인해서인지, 종양 등의 이유로 턱밑샘을 절제해 낼 때 손상이 되면 턱끝피부의 지각이상(paresthesia)가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었다⁴⁷.

지엽적인 것으로는, 턱목뼈근신경의 주행과 관련 있는 턱목뼈근신경고랑의 경우 간혹 고랑의 형태를 넘어서 관의 형태를 띠는 것이 보고되는 데 이를 mylohyoid

bridge라고 하고, 체질인류학적인 관심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⁸⁾.

참 고 문 헌

1. KMLE: KMLE; [Available from: <http://www.kmle.co.kr/search.php?Search=mylohyoid%20nerve>.
2. n. mylohyoideus [Available from: <https://ifaa.unifr.ch/Public/EntryPage/TA98%20Tree/Entity%20TA98%20EN/14.2.01.090%20Entity%20TA98%20EN.htm>.
3. Mylohyoid: Wiktionary; [Available from: [https://en.wiktionary.org/wiki/mylohyoid#:~:text=Etymology,molar%E2%80%9D\)%20%2B%E2%80%8E%20hyoid](https://en.wiktionary.org/wiki/mylohyoid#:~:text=Etymology,molar%E2%80%9D)%20%2B%E2%80%8E%20hyoid).
4. Maxillary muscle nerve: Wiktionary; [Available from: <https://ja.wikipedia.org/wiki/%E9%A1%8E%E8%88%8C%E9%AA%A8%E7%AD%8B%E7%A5%9E%E7%B5%8C>.
5. Kim Mg, Head and Neck Anatomy: History of Dentistry; 2021.
6. Claffey E, Reader A, Nusstein J, Beck M, Weaver J. Anesthetic efficacy of articaine for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s in patients with irreversible pulpitis. *Journal of endodontics*. 2004;30(8):568-71.
7. AlHindi M, Rashed B, AlOtaibi N. Failure rate of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among dental students and interns. *Saudi medical journal*. 2016;37(1):84-9.
8. Lee CR, Yang HJ. Alternative techniques for failure of conventional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J Dent Anesth Pain Med*. 2019;19(3):125-34.
9. Madan G, Madan S, Madan A. Failure of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Exploring the alternatives.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1939)*. 2002;133:843-6.
10. Potocnik I, Bajrović F. Failure of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in endodontics. *Endodontics & dental traumatology*. 1999;15(6):247-51.
11. You TM, Kim K-D, Huh J, Woo E-J, Park W. The influence of mandibular skeletal characteristics on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anesthesia. *J Dent Anesth Pain Med*. 2015;15(3):113-9.
12. Barker BCW, Lockett BC. Multiple canals in the rami of a mandible.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1972;34(3):384-9.
13. Arensburg B, Nathan H. Anatomical observations on the mylohyoid groove, and the course of the mylohyoid nerve and vessels. *Journal of oral surgery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1965)*. 1979;37(2):93-6.
14. Jidoi K, Nara T, Dodo Y. Bony Bridging of the Mylohyoid Groove of the Human Mandible. *Anthropological Science*. 2000;108(4):345-70.
15. Khoury J, Mihailidis S, Ghabriel M, Townsend G. Applied anatomy of the pterygomandibular space: improving the success of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s. 2011;56(2):112-21.
16. Haveman CW, Tebo HG. Posterior accessory foramina of the human mandible.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1976;35(4).
17. Sutton RN.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mandibular accessory foramina. *Australian dental journal*. 1974;19(3):167-73.
18. Bennett S, Townsend G. Distribution of the mylohyoid nerve: anatomical variability and clinical implications. *Australian endodontic journal : the journal of the Australian Society of Endodontology Inc*. 2001;27(3):109-11.
19. Wilson S, Johns P, Fuller PM. The inferior alveolar and mylohyoid nerves: an anatomic study and relationship to local anesthesia of the anterior mandibular teeth. *J Am Dent Assoc*. 1984;108(3):350-2.
20. Lee CR, Yang HJ. Alternative techniques for failure of conventional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J Dent Anesth Pain Med*. 2019;19(3):125-34.
21. Barker BC. Anatomy of the hard and soft tissues of the oral cavity. *Annals of the Australian College of Dental Surgeons*. 1969;2:22-38.
22. Stein P, Brueckner J, Milliner M. Sensory innervation of mandibular teeth by the nerve to the mylohyoid: implications in local anesthesia. *Clinical anatomy (New York, NY)*. 2007;20(6):591-5.
23. Altug HA, Sencimen M, Varol A, Kocabiyik N, Dogan N, Gulses A. The efficacy of mylohyoid nerve anesthesia in dental implant placement at the edentulous posterior mandibular ridge. *The Journal of oral implantology*. 2012;38(2):141-7.
24. Gray H, Vandyke Carter H. *Gray's Anatomy*. 42 ed: Elsevier; 2020.
25. Gandhi S, Mehta V, Suri RK. Unusual array of neural communications in the infratemporal fossa: Useful for skull base surgery. *Morphologie : bulletin de l'Association des anatomistes*. 2018;102(339):302-5.

참고 문헌

26. Ossenberg NS. Retromolar foramen of the human mandible.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987;73(1):119-28.
27. Shen YW, Chang WC, Huang HL, Tsai MT, Fuh LJ, Hsu JT. Assessment of the Retromolar Canal in Taiwan Subpopulation: A Cross-Sectional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Study in a Medical Center. *Tomography (Ann Arbor, Mich)*. 2021;7(2):219-27.
28. Truong MK, He P, Adeeb N, Oskouian RJ, Tubbs RS, Iwanaga J. Clinical Anatomy and Significance of the Retromolar Foramina and Their Canals: A Literature Review. *Cureus*. 2017;9(10):e1781.
29. Gamieldeen MY, Van Schoor A. Retromolar foramen: an anatomical study with clinical consid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16;54(7):784-7.
30. Tong DC. The great auricular nerve: a case report and review of anatomy. *The New Zealand dental journal*. 2000;96(424):57.
31. Ryu E-J, Kim D-H. Anatomical insights of the mylohyoid for clinical procedures in dentistry. 2021;34(3):461-9.
32. Shen D, Do Q, Ohyama H, Tubbs RS, Iwanaga J. Dual innervation of the mylohyoid muscle by the trigeminal and hypoglossal nerves: A case report. *Morphologie : bulletin de l'Association des anatomistes*. 2021;105(348):72-4.
33. Krmpotić-Nemanić J, Vinter I, Hat J, Jalsovec D. Mandibular neuralgia due to anatomical variations. *European archives of oto-rhino-laryngology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Oto-Rhino-Laryngological Societies (EUFOS) : affiliated with the German Society for Oto-Rhin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 1999;256(4):205-8.
34. Kumar S, Kumar CJ, Bhat S, Kumar A. Anatomical study of the unusual origin of a nerve to the mylohyoid muscle and its clinical relevance. *The British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11;49(5):e14-5.
35. Cooper A, Sadr A, Xu L, Tubbs R, Iwanaga J. Variant innervation of the mylohyoid muscle by the lingual nerve. *Folia Morphologica*. 2021;0(0).
36. Potu BK, Pulakunta T, Ray B, Rao MS, Bhat KM, D'Silva SS, et al. Unus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lingual nerve and mylohyoid nerves in a South Indian male cadaver: its clinical significance. *Romanian journal of morphology and embryology = Revue roumaine de morphologie et embryologie*. 2009;50(1):145-6.
37. Sinha P, Tamang BK, Sarda RK. Communication between Mylohyoid and Lingual Nerve: An Anatomical Variation. *J Clin Diagn Res*. 2014;8(4):AD01-AD2.
38. Sato I, Sunohara M, Ueno R, Yoshida S. Branch of mylohyoid and lingual nerves on submandibular and submental triangles. *Okajimas folia anatomica Japonica*. 2004;81(2-3):45-8.
39. Valentin G, Cortázar Ay, V. B, Baptiste J, Jourdan AJL. *Traité de neurologie*. Chez J.-B. Baillière1843.
40. Madeira MC, Percinoto C, das Graças MSM. Clinical significance of supplementary innervation of the lower incisor teeth: a dissection study of the mylohyoid nerve. *Oral surgery, oral medicine, and oral pathology*. 1978;46(5):608-14.
41. Tubbs RS, Shoja MM, Loukas M. *Bergman's Comprehensive Encyclopedia of Human Anatomic Variation*: Wiley-Blackwell; 2016.
42. Guyot L, Layoun W, Richard O, Cheynet F, Gola R. Alteration of chin sensibility due to damage of the cutaneous branch of the mylohyoid nerve during genioplasty.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2002;60(11):1371-3.
43. Varol A, Sencimen M, Kocabiyik N, Gulses A, Ozan H. Clinical and anatomical aspects of possible mylohyoid nerve injury during genioplas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09;38(10):1084-7.
44. Oth O, Louryan S, Van Sint Jan S, Rooze M, Glineur R. Impact of the mandibular divergence on the position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nd mylohyoid nerve: a computed tomography study and its relevance to 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Surgical and radiologic anatomy : SRA*. 2013;35(3):241-7.
45. Roberts BJ. Mylohyoid ridge reductions as an aid to success in complete lower dentures.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1977;37(5):486-93.
46. Adjei SS, Hammersley N. Mylohyoid nerve damage due to excision of the submandibular salivary gland. *The British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1989;27(3):209-11.
47. Marinho RO, Tennant CJ. Paresthesia of the cutaneous branch of the mylohyoid nerve after removal of a submandibular salivary gland.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1997;55(2):170-1.
48. Jidoi K, Nara T, Dodo Y. Bony Bridging of the Mylohyoid Groove of the Human Mandible. *Anthropological Science*. 2000;108(4):345-70.